

곡성군, 집 안에서 건강관리 OK

고령자·기저질환자 비대면 건강관리·1:1 방문서비스

방문보건 전담팀, 3490가구 대상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도



곡성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건강취약계층 3,490가구를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와 1:1 대면 방

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이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외출이 부담스러워 집안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들을 위해 비대면 건강관리와 1:1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방문보건 전담팀은 먼저 비대면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그리고 상처가 있거나 도뇨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직접 방문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 시에는 코로나19로부터 취약한 고령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제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훈련도 지도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걱정으로 외출을 꺼리는 고령자들과 기저질환자들이 가정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광양소방서 “소방관이 찾아가서 알려주는 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성인발달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광양소방서는 성인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화재에 신속히 대처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을 지난 21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대피와 적절한 대처이다. 재난약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보통 사람에 비해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방안전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이자 필수이다.

이번 교육은 ▲ 화재 시 위험한 행동과 안전한 행동 구별하기 ▲

화재를 알려주는 신호 알아보기 ▲ 화재 시 119신고로 신고하는 방법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행동방법 ▲ 화재 시 연기를 피하는 방법 등 모든 교육을 소방교육 장비를 통한 만지고 체험하는 체험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시설관계자는 “안전 행동의 중요성은 잘 알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실제로 한분 한분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광주 서구, 비대면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 운영

광주 서구가 호남권역재활병원 공공사업단과 연계해 보건소 등록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Happy! Smile!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보건소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비대면 재활서비스로 마련됐다.

이에 기존 진행됐던 아동 재활프로그램은 토달공예 및 자연테라피 작업모듬키트 등을 활용한 비대면 공예프로그램으로 전환, 운영된다.

이번 ‘Happy! Smile! 재활서비스’는 아동들의 방학기간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여름에 유용한 바르는 모기약 ‘버블리’, 향긋한 ‘디퓨저’, 상쾌한 ‘룸 스프레이’, 멋쟁이 ‘카드 목걸이’ 만들기 등 총 4회분의 활동으로 구성되며, 작업 모듬키



트를 희망대상 아동 가정에 배부함으로써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비대면 재활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정 내 지속적인 재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된 장애아동들에게 활력과 생동감을 불러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무기력한 생활에 지친 장애아동과 부모가 함께 가정에서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성취감 및 정서적 지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휴먼퍼스트, 코로나 예방위해

광주세광학교에 손소독제 기증

광주세광학교가 과학기술원에 소재한 지역기업들로부터 지난 6월부터 7월20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700만 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기증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기업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기업인 유아용품 및 마스크 제조업체 ‘휴먼퍼스트’(대표이사 문선희)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기증했고, 기체 여과기 제조업체 ‘세과란’(대표이사 김세철)은 200만 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기증했다.

‘휴먼퍼스트’는 시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겸한 직업재활전공과 학생들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주세광학교와 2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 왔다. ‘휴먼퍼스트’는 광주세광학교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스스로 제품 생산에 참여해 생산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자사 생산 제품들의 공정 작업 분석 후 다양한 작업으로 재구성해 직업교육 활성화에 협력해 왔다.

김민정 기자

영암군 보건소, 코로나블루 극복 심리상담 지원

영암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블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blue)의 합성어로 코로나19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장기화가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불안, 고립, 스트레스 등이 있다.

코로나블루 예방 및 극복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시간 등 일

상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신건강센터는 코로나블루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대상자에게 심리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좋은생각 책자와 외국인인 위한 직소퍼즐이 들어있는 마음건강꾸러미를 제공한다.

이국선 영암군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며 “영암군민의 심리적 안정 및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